

월간 주요 이슈

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(2024. 2. 15.)

압박스타킹, 부위별 압박 정도와 내구성에 제품 간 차이 있어

- 일부 제품에서 알러지 유발 가능성 있는 염료가 검출돼 -

- 몸매 보정 또는 혈액 순환의 도움을 위해 착용하는 압박스타킹은 일반 의류제품과 의료기기 제품으로 구분해 판매되고 있지만, 제품의 부위별 압박 정도와 내구성 등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.
- 이에 한국소비자원(원장 윤수현)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스타킹 브랜드의 압박스타킹 13개 제품(섬유 제품 12개, 의료기기 제품* 1개)에 대해 품질 및 안전성시험을 실시한 결과, 피복압, 파열강도 등 주요 기능과 내구성에 차이가 있었고 알러지성 염료**가 검출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확인됐다.

*혈액이 괴는 것을 방지하거나 신체의 일부분을 탄력으로 압박 또는 잡아주는 기구

**인체와 접촉 시 알러지 유발 가능성이 있는 분산염료

【스타킹 품질 비교】

- 대상 제품 : 스타킹 10개 브랜드의 13개 제품
- 조사 항목 : 기능성(피복압, 신장회복률), 내구성(파열강도), 색상변화(땀견뢰도, 물견뢰도 등)
안전성(폼알데하이드, pH 등), 표시사항 및 제품특징 등

- 한국소비자원은 압박스타킹 제품에 대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사업자에게 판매를 중지하고 유통 중인 제품은 회수할 것을 권고했으며 관계부처에는 관련 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.
- 아울러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 의류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'소비자24(www.consumer.go.kr)'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.